

2040세대 유입 시책 발굴 총력

전남도·시군 청년창업지원 정책 올인 7개 공모사업 선정, 내년 1월부터 추진

전남도와 일선 시군들이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젊은 세대를 잡기 위한 시책 발굴에 집중한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인구 희망 찾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고 도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젊은 세대(2040)의 유입과 정착 사업을 펼친다.

지난 10월 25일부터 1개월간 도내 일선 시군으로부터 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해 이중 7개 사업을 선정했다.

순천시 원도심의 빈집을 활용해 청년공유공간인 '공유로' 사업을 제안했고, 광양시는 청년을 위한 창작 연구 실험공간인 상상 캠퍼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곡성군은 폐교를 청년문화 공간으로

조성해 외지 청년을 유입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보성군은 한발 더 나아가 외지 청년 예술인 유입과 정착을 위한 공방촌(청년 BLUE VILLAGE) 조성 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무안군도 귀농희망 외지 청년에게 집주 주택 등 주거 공간을 제공한다.

지역 출신 귀향 청년을 타깃으로 삼아 '유턴 정착'을 위한 주거 체험 교육 공간은 고흥군이 마련 중이다.

공간 제공을 넘어 청년 세대를 지역 경제의 디딤돌로 육성한다는 구상도 이번 프로젝트에 밝혔다.

장흥군은 청년 세대를 지역의 농수축산 특산물 마케터로 양성해 정착을 지

원하기로 했다.

선정된 아이디어에는 2억원 안팎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사업 추진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오는 14일까지 사업계획을 보완해 보조금을 교부하고 내년 1월부터 착수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선정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며, 각종 정부 공모사업에도 추천해 전국의 인구 정책 선도모델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시군뿐 아니라 민간분야까지 공모를 확대하고 2022년까지 100개의 사업을 발굴해 육성할 방침이다.

유현호 전남도 인구정책실장은 "젊은(2040)세대"라며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창업·창작·문화 생태계를 조성해 활력 넘치는 젊은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님 행진곡' 세계 민주주의 상징곡 추진

시, 대중화·세계화' 사업 국비 9억 확보

5·18 광주민주화운동 상징곡이자 광주정신이 깃든 '님을 위한 행진곡'이 세계 민주주의 상징곡으로 거듭난다.

광주시는 5월 민주정신을 문화예술을 통해 세계에 알리기 위해 추진해온 '님을 위한 행진곡 대중화·세계화' 사업비가 내년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비 9억원이 반영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2년까지 총사업비 83억원(국·시비 각50%)을 5년간 투입해 '님을 위한 행진곡'을 기반으로 전 세계인이 공감하고 감동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작·보급, 글로벌 브랜드화하는 내용이다.

시는 국비 9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님을 위한 행진곡 창작 뮤지컬'을 제작하고 2020년 5·18민주화운동 제40주년을 기념해 국내외 순회공연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홍콩, 대만, 중국,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국가별로 제작각 불리고 있는 '님을 위한 행진곡'을 표준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표준가사를 마련하고 행진곡의 가사와 배경, 과정 등을 세계어로 번역해 배포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이밖에도 아시아, 유럽 등 민중가요분야 활동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아카데미, 워크숍 등 국제학술행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은 '님을 위한 행진곡' 대중화·세계화를 위해 2018년부터 관현악곡 제

작, 국내외 연주회 개최, 창작 관현악곡 작품공모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님을 위한 행진곡'에 담긴 5월 민주정신을 문화예술을 통해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마련, 이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콘텐츠들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광주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병재 시 문화도시정책관은 "2022년까지 '님을 위한 행진곡'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문화콘텐츠들이 세계적인 브랜드상품이 될 수 있도록 제작·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광주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민주·인권·평화도시라는 글로벌 브랜드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정상용 환경공단 이사장 후보 자진 사퇴

"광주 시정에 부담으로 작용될까 걱정"

정상용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정 후보자는 12일 오후 사퇴의 변을 통해 "제 삶의 마지막 봉사의 기회로 삼기 위해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공모에 도전했지만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많은 현안들이 놓여있는 절박한 광주의 상황에서 저를 둘러싼 논란이 지역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돼 사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특히 "민선 7기 광주시정을 열정적으로 이끌고 계시는 이용섭 시장께 누가 되지 않기 위해 환경공단 이사장 내정자 신분을 접고 사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강조했다.

전문성과 청문회 준비부족 논란에 자녀 병역 기피와 위장 전입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심적 부담이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오전 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

장단이 만장일치로 "임용이 부적격하다"고 뜻을 모은 점도 자진사퇴를 압박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또 오랜 기간 이어온 반독재 투쟁과 5·18민주화운동을 통해 살아온 민주인사로서의 이미지를 고려한 용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 후보자는 이용섭 시장과 동향인 함평 출신으로 13·14대(1988~1996년·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을 지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이 시장 선거 캠프에서 중책인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경력에다 환경 관련 경력이 전무해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황애란 기자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마케팅

기업설명회 100여명 참석 제2트랙 등 관심

전남도가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활성화 위한 마케팅에 나섰다.

전남도는 12일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옐타워에서 국내 모터스포츠 대회 주관사, 레이싱팀 및 기업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자동차경주장 마케팅 기업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국내 메이저 대회인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넥센타이어 스피드 레이싱', 'TCR코리아' 등 모터스포츠 대회 주관사를 비롯해 팀 관계자와 동호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2019년 경주장의 주요 정책과 시설 확충 계획 등을 논의했다.

특히 상설시킵과 분리할 수 있는 제2트랙이 내년부터 운영돼 주말에 집중되는 대회와 동호회 행사 동시 개최 등 제2트랙 예약에 대한 임대 문의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경주장 유휴부지에 조성되는 자동차 복합문화공간과 레저스포츠 시설 등 시설 확충 계획에 대한 관심도 집중됐다.

전남도는 슬라럼, 짐카나 등 드라이빙 교육이 가능한 다목적 광장과 자전거 도로, 키즈모터파크 등 관광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경주장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정근산 기자

도, 아동정책 계획 전국 우수

아동정책 계획 전국 우수

전남도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12월 기관표창과 포상금 1,000만원을 받았다.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는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통해 아동 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자체의 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전국 시도 2017년 아동정책 시행계획 추진 실적에 대해 총 4개 항목 10개 세부지표를 중심으로 아동정책 전 분야를 평가한다.

평가 결과 시행계획 수립 시 의견 수렴 등 수립 절차, 신규 지표인 드림스타트 수혜율, 취약아동 방과후 돌봄이율, 아동 친화도시 구축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근산 기자



광주시사회복지사 대회 이용섭 광주시장이 12일 오후 광산구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열린 '2018 광주시사회복지사 대회'에 참석해 유공자 표창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제공

'오락가락' 시 조직개편안 오늘 재심의

자치행정국 선임 부서 자치행정과로 변경

자치행정국 산하 선임 부서 변경 문제로 의회 심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린 광주시 조직개편안이 일부 수정돼 의회에 다시 제출됐다.

12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전 의원 간담회에서 자치행정국의 선임 부서를 총무과에서 자치행정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종제 행정부시장은 12일 오전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체 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조직개편안을 두고 혼

선을 드러 유감"이라고 우회적으로 사과한 뒤 의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9일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등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지난달 26일 의회는 자치행정과를 선임 부서로 한다고 했지만 같은 달 29일 설명도 없이 총무과로 변경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의회 반발로 조직개편안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을 우려한 시는 원안대로 자치행정과를 선임 부서로 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21일 자치행정국 조직표에서 맨 위에 위치하는 선임 부서를 기존 총무과에서 자치행정과로 변경하는 안을 예고했다. 하지만 해당 부서가 반발하자 부서 간 논의를 거쳐 총무과를 선임 부서로 유지하기로 하고 의회에 올렸다. 부서, 의회 반발에 따라 조직개편안이 오락가락한 것이다.

행자위는 13일 회의를 열어 조직개편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자치행정국 선임 부서 안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은 만큼 상임위 통과하면 14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조직개편안이 시행된다.

/황애란 기자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리미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리미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